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의 경과와 전망

노윤재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yjro@kiep.go.kr, 044-414-1143)

윤지현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chyun@kiep.go.kr, 044-414-1327)



차 례

1.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의 경과
2. 반정부 시위의 정치적·경제적 배경
3. 반정부 시위의 영향과 향후 과제 및 전망

주요 내용

- ▶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 결과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사임하고, 무함마드 유누스를 수장으로 한 과도정부가 출범
 - 2024년 6월 5일 하시나 정부가 독립전쟁 참전 유공자 후손에게 공무원 일자리의 30%를 할당하는 공직 할당제 재도입을 결정하면서 논란 발생
 - 대학생들의 평화적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산, 공직 할당제 부활이 무산된 후에도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며 최소 440여 명이 사망함.
 - 8월 5일 시위대의 총리 관저 집결 중 하시나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고 국외로 도피함.
 - 빈곤퇴치 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과도정부가 출범, 헌법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90일 이내 총선 준비 시작
- ▶ 반정부 시위의 정치적 배경: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장기 집권,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방글라데시의 정치 불안정이 심화
 - 하시나 총리는 지난 1월 총선에서 4연임에 성공하며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으나, 「디지털 보안법」 제정, 언론인 탄압, 선거 부정 논란, 야당 탄압 등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방글라데시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이러한 정치적 불안은 하시나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짐.
- ▶ 반정부 시위의 경제적 배경: 높은 청년 실업률, 일자리 부족, 거시경제 불안정
 - 청년 실업률 상승,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공무원 일자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공직 할당제 부활 결정이 청년 실업난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킴.
 - 높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외환보유고 등 경제적 불안 속에서 정치적 혼란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킴.
- ▶ 하시나 총리의 사임은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두 번째 독립' 또는 '해방'으로 불리며 새로운 정치적 장의 개막을 상징
 - 그러나 새로운 정부 구성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 해결 필요
 - 과도정부는 정치적 안정성 회복, 국제사회와의 신뢰 및 파트너십 재건을 위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1.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의 경과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Wazed) 방글라데시 총리가 반정부 시위대에 밀려 사임한 후 국외로 도피함에 따라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를 수장으로 한 과도정부가 들어섬.

- 2009년 이래 15년간 장기 집권한 하시나 총리¹⁾가 2024년 8월 5일 사임을 발표한 직후 인도로 도피함.
- 모하메드 샤하부딘(Mohammed Shahabuddin) 대통령은 2024년 1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제12대 의회를 즉각 해산하고²⁾ 과도정부의 최고 고문으로 무함마드 유누스를 임명함.
 - 8월 7일 샤하부딘 대통령은 군부 지도자, 대학생 시위대 대표자, 시민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유누스를 수장으로 결정했음을 밝힘.
 - 유누스는 1983년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을 설립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소액 대출사업을 운영해 빈곤퇴치 운동가로 알려진 경제학자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음.
- 8월 8일 출범한 유누스 과도정부는 헌법에 따라 의회를 해산한 6일을 기점으로 90일 이내 실시될 차기 총선 준비에 착수함.

■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공직 할당제(job quota)의 부활과 이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로 촉발됨.

- 2024년 6월 5일 하시나 정부가 독립전쟁 참전 유공자 후손에게 공무원 일자리의 30%를 할당하는 공직 할당제의 재도입을 결정하며 논란이 불거짐.
 - 공직 할당제는 1971년 독립 직후 1972년 도입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는데,³⁾⁴⁾ 하시나가 총리로 처음 부임한 1996년에 혜택 범위가 유공자 당사자에서 2세대(자녀)로, 2009년 두 번째 임기에는 3세대(손자)까지 확대됨.
 - 동 제도는 2018년 7월 역차별 논란으로 불거진 대규모 시위로 폐지되었으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제기한 할당제 복원 소송이 2024년 6월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부활함.
 - 이는 공무원 일자리의 56%를 △독립유공자 후손(30%), △저개발지역 출신(10%), △여성(10%), △소수 민족(5%), △장애인(1%)에게 할당하는 것으로 경쟁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은 44%에 불과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킴.
- 고등법원의 판결 직후 방글라데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시작됨.
 - 학생들은 방글라데시의 청년 실업률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공무원직에 대한 할당제가 고용 공정성을 훼손함을 지적함.

1) 방글라데시의 초대 대통령이나 국부로 여겨지는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의 장녀로 1996년 총선에서 총리로 집권하며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으나 2009년 재집권 이래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자행한 것으로 평가됨.

2) 방글라데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짐.

3) 방글라데시(당시 동(東)파키스탄)는 파키스탄(당시 서(西)파키스탄)과의 전쟁으로 1971년 분리 독립함.

4) 1976년까지는 할당률이 80%, 그 이후에는 55%로 완화되었으며 2012년 장애인에 대한 할당을 추가하면서 56%로 확대됨. The Daily Star(2024. 7. 13.), "Quota system in govt jobs: Reforms must be well thought out," <https://www.thedailystar.net/news/bangladesh/news/quota-system-govt-jobs-reforms-must-be-well-thought-out-3655376>(검색일: 2024. 8. 7.).

- 평화적으로 시작된 대학생 시위가 폭력 사태로 격화되고, 공직 할당제 부활이 무산된 이후에도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면서 최소 440여 명이 사망하기에 이룸.
 - 고등법원의 판결 직후 수도 다카(Dhaka)의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된 평화시위는 이슬람 연휴 동안 잠시 중단되었다가 7월 들어 재점화됨.
 - 7월 15일 집권 여당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의 사무총장이 친정부 학생단체인 차트라리그(Chhatra League)에 반격을 선동하면서 시위대와 차트라리그 간 유혈사태로 격화되었으며,⁵⁾⁶⁾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7월 16일)함에 따라 전국의 대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짐.
 - 정부는 7월 18일 다카 지하철 운영을 중단하고 전국의 인터넷과 통신망을 차단했으며, 19일에는 전국의 철도 운영을 중단하고 군대를 동원해 통행금지령을 내리는 등 방글라데시 전역에 봉쇄를 본격화함.
 - 1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유혈사태 끝에 7월 21일 정부가 공직 할당제 비율을 기존의 56%에서 7%(독립유공자 후손 5%, 소수민족과 장애인, 성소수자에 2% 할당)로 대폭 축소하는 대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시위가 일시적으로 진정됨.⁷⁾
 - 그러나 시위대 석방을 비롯한 대정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7월 29일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재개되었으며, 일반 시민의 가세와 함께 시위의 목적이 하시나 총리 퇴진 요구로 전환됨.
 - 8월 2일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다시 격화되기 시작한 시위는 다카에서 8월 4일 하루 사이 1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유혈사태로 이어졌으며, 이에 다시 인터넷 차단과 통행금지령이 재개됨.
 - 8월 5일 시위대가 통행금지령을 무시하고 총리 관저로 집결하던 가운데 결국 하시나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고 국외로 도피함.
 - 반정부 시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방글라데시 시민들의 일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8월 6일 기준 반정부 시위로 최소 4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⁸⁾
- 본고는 공직 할당제로 인해 발생한 반정부 시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 시위가 방글라데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며, 과도정부가 직면한 상황과 역할, 방글라데시가 앞으로 직면할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5) New Age(2024. 7. 16.), "Six killed as clashes erupt all over," <https://www.newagebd.net/post/Country/240337/six-killed-as-clashes-erupt-all-over>; The Daily Star(2024. 7. 16.), "BCL unleashes fury on quota protesters," <https://www.thedailystar.net/news/bangladesh/crime-justice/news/bcl-unleashes-fury-quota-protesters-3657866>(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8. 7.).

6) 하시나 총리는 7월 14일 시위대를 라자카르(Razakar, 독립전쟁 당시 파키스탄 측에 협력했던 매국노)에 비유하면서 공분을 샀.

7) CNN (2024. 7. 21.), "Bangladesh's top court rolls back most government job quotas after violent protests," <https://amp.cnn.com/cnn/2024/07/21/asia/bangladesh-supreme-court-rolls-back-job-quotas-intl>(검색일: 2024. 8. 7.).

8) The Hindu(2024. 8. 6.), "Bangladesh protests: Death toll climbs to 440 as army tries to bring situation under control," <https://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death-toll-climbs-to-440-in-bangladesh-protests-efforts-by-army-to-bring-situation-under-control/article68493113.ece>(검색일: 2024. 8. 7.).

2. 반정부 시위의 정치적·경제적 배경

가. 정치적 요인

1)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장기 집권

■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장기 집권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 독립의 아버지이자 초대 총리였던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Sheikh Mujibur Rahman)의 딸로, 2009년부터 연속 집권 중이었으며, 지난 1월 총선에서 4연임에 성공했음.
 - 첫 번째 임기(1996~2001년)에는 경제 개발, 빈곤 퇴치, 1971년 독립전쟁 중 발생한 전쟁 범죄 정의 추구에 집중했으며, 2009년 재집권한 이후 인프라 개발, 경제성장,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중점
 - 2014년, 2018년, 2024년 선거에서 연속으로 승리했으나 계속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음.
- 하시나 총리 집권 기간 중 방글라데시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함.
 - 경제성장률 6.5% 기록, 파드마대교(29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평
 - 여성 권리 증진, 교육 및 보건 분야 성과로 저소득 국가에서 중저소득 국가로 도약하며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하시나 정부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디지털 보안법」 제정, 언론인 탄압, 선거 부정 논란, 야당 탄압 등의 이유로 비판받는 상황이었음.

■ 독립 이후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과 주요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방글라데시는 불안정한 정치 환경을 이어왔음.

- BNP의 지도자인 칼레다 지아(Khaleda Zia)⁹⁾와 셰이크 하시나 총리 간의 오랜 라이벌 관계는 방글라데시 정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 둘의 경쟁은 1980년부터 본격화되었음.
 - 1991년 방글라데시가 군사 정권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 두 지도자는 번갈아 총리직을 맡으며 정치적 경쟁을 이어옴.
 - 이들의 라이벌 관계는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 2024년 1월 7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아와미 연맹이 다시 승리하며,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네 번째 연속 집권을 이어가게 되었음.

9) 칼레다 지아는 방글라데시의 초대 총리이자 군사 지도자였던 지아우르 라흐만의 미망인으로, 지아우르 라흐만은 이슬람 중심의 보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치적 이념으로 삼는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을 창당.

- 하시나 총리 재임 기간 칼레다 지아와 BNP는 정치적 억압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약화되었고, 칼레다 지아 전 총리는 횡령 등의 부패 혐의로 연금된 상태였으나 하시나 총리 사임 이후 석방됨.
- 방글라데시는 사실상 아와미 연맹이 독점하는 정치 체제로 변모하였고, 이는 1월 선거 이후 더욱 심화되었음.
- 하시나 총리는 BNP를 억압하기 위해 정치적 탄압, 법적 제재 등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강화함.

2) 총선 부정선거 의혹

■ 2024년 1월 방글라데시 총선에서 하시나 총리가 4연임에 성공하고, 아와미 연맹이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를 확정 지었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됨.

- 아와미 연맹이 전체 299석 중 22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나, 야당은 부정선거를 주장함.
 - 유권자 탄압, 정보 접근 제한, 인터넷 차단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비난이 제기됨.
 -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거나, 야당 지지자들의 온라인 활동이 제한되었다는 비판이 있음.¹⁰⁾
- 제1야당인 BNP는 집권당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를 보이콧, 결국 299석 중 62석은 무소속 후보가, 1석은 자티야당(Jatiya Party)이 차지함.
 - BNP는 하시나 총리가 사임하고 중립 당국이 총선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총선에 불참을 결정함.
 - BNP는 보이콧의 의미로 후보를 내지 않았으며, 선거는 사실상 아와미 연맹의 독주로 진행됨.

■ 방글라데시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이러한 정치적 불안은 하시나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짐.

-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의 공식 투표율이 약 40%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2018년 선거 투표율인 80%의 절반에 불과함.¹¹⁾
 - 투표율은 방글라데시 선거 역사상 세 번째로 낮은 기록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음.
-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우려함.
 - 특히 미국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 과정을 방해하는 인물들에게 비자 제한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몇 달 동안 미-방글라데시 관계는 긴장 상태였음.
-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도 방글라데시 선거의 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함.

10) Foreign Policy(2024. 1. 2.), "Opposition Protests Are a Mainstay in Booming Bangladesh," <https://foreignpolicy.com/2024/01/02/bangladesh-parliamentary-elections-sheikh-hasina-awami-league-opposition/>(검색일: 2024. 8. 13.).

11) Reuters(2024. 1. 7.), "Bangladesh turnout low in election set to keep PM Hasina in power,"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pm-hasina-set-extend-tenure-main-bangladesh-opposition-boycotts-election-2024-01-06/>(검색일: 2024. 8. 13.).

-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방글라데시의 시민사회등급(civic space rating)을 최하위 등급인 ‘폐쇄(closed)’로 하향 조정하며, 선거 과정의 불투명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¹²⁾
- 경제적 불만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음.

나. 경제적 요인

1) 높은 청년 실업률

- 중위 연령 25.3세(UN, 2024)로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지난 10여 년 사이 청년 실업률이 가파르게 치솟는 등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음.
 - IL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2010년 이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15.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그림 1 참고).
 - 방글라데시 통계청(BBS: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에서 발표한 「Labour Force Survey 2022」에 의하면 방글라데시 실업자 258만 명의 83.2%가 15~29세 청년으로 약 215만 명에 달함.
 - 세부 연령별 인구수는 △15~19세 62만 3천 명, △20~24세 106만 6천 명, △25~29세 45만 9천 명으로, 차례로 24.1%p, 41.3%p, 17.8%p를 차지함.
 - 29세 이하 대학 졸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27.8%로 약 72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실업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무려 14.7%에 달함.
 - 방글라데시 개발학연구소(BIDS: Bangladesh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의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국립대학 졸업자의 66%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¹³⁾
 - 한편 교육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업 및 비경제활동 청년을 일컫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965만 명으로 15~29세 인구의 22%에 달함.¹⁴⁾
-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 노동 수요와 공급자 간 기술 불일치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공무원 채용 경쟁률만 급증하는 추세임.
 - 고용 수요가 1·2차 산업에 치우쳐 있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합한 기술 훈련이나 교육 기회마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회복 부진과 창업 여건 부족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가 크게 축소됨.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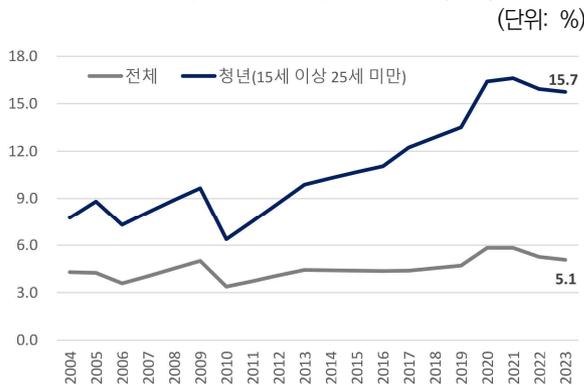
12) CIVICUS, <https://monitor.civicus.org/presscentre/bangladesh/>(검색일: 2024. 8. 12.).

13) Dhaka Tribune(2024. 5. 13.), "Why unemployment is increasing," <https://www.dhakatribune.com/bangladesh/346441/why-unemployment-is-increasing>(검색일: 2024. 8. 8.).

14) ILO 기준(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산정)이 아닌 응답자가 스스로 취업상태라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취업상태를 산정하는 「Bangladesh Sample Vital Statistics 2023」 조사 결과에서는 15~24세 니트족 비율이 3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방글라데시 통계청, "Bangladesh Sample Vital Statistics (SVRS) 2023," <https://bbs.gov.bd/site/page/ef4d6756-2685-485a-b707-aa2d96bd4c6c/Vital-Statistics>(검색일: 2024.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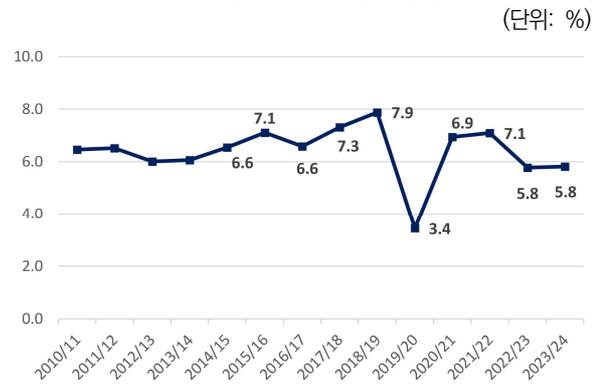
- 이처럼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 안정성과 퇴직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추세임.
- o 일부 금융권이나 다국적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일자리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낮고 노동법 준수에 취약해 취업준비생의 외면을 받고 있음.¹⁶⁾
- 이 외중에 공직의 절반 이상을 할당하는 제도의 부활은 청년 실업난에 대한 불만 표출의 기폭제가 됨.

그림 1. 방글라데시 청년 실업률(ILO)



자료: 세계은행, WDI(검색일: 2024. 8. 9.).

그림 2. 방글라데시 경제성장률



자료: CEIC(검색일: 2024. 8. 8.).

2) 거시경제 불안정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글라데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2023년 IMF 구제금융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는 주요 신용등급평가의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음.

- 방글라데시 경제는 2014/15년 이래 의류산업을 앞세워 연평균 7%대의 고성장을 이어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고갈됨에 따라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¹⁷⁾
 - o GDP 성장률은 2020/21년 6.9%, 2021/22년 7.1%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 2022/23년과 2023/24년 연이어 5.8%에 그치며 기대치를 하회함(그림 2 참고).
 - o 방글라데시 정부는 당초 2023/24년 경제성장률을 7.5%로 전망했으나 2024년 1월 6.5%로 하향 조정 한 바 있음.¹⁸⁾

-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듬해 1월 47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42개월)을 도입해 2024년 6월까지 총 28억 5천만 달러를 수령함.

15) Dhaka Tribune(2024. 5. 13.), "Why unemployment is increasing," <https://www.dhakatribune.com/bangladesh/346441/why-unemployment-is-increasing>(검색일: 2024. 8. 8.); Prothom Alo(2024. 2. 4.), "41pc youth are neither working nor studying," <https://en.prothomalo.com/bangladesh/tn3nnbe3cr>(검색일: 2024. 8. 9.).

16) The Daily Star(2024. 8. 3.), "Job-scarce economy," <https://www.thedailystar.net/business/news/job-scarce-economy-3668266>(검색일: 2024. 8. 8.).

17) 방글라데시 회계연도로 2023/24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를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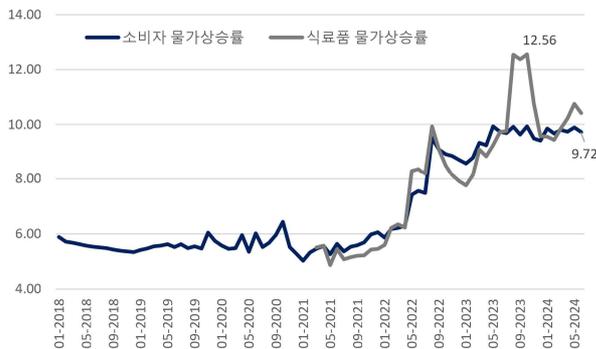
18) The Daily Star(2024. 1. 17.), "GDP growth target down to 6.5%, inflation target up to 7.5%" <https://www.thedailystar.net/business/news/gdp-growth-target-down-65-inflation-target-75-3521526>(검색일: 2024. 8. 8.).

- 이러한 가운데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가 방글라데시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2024년 5월)한 데 이어, 7월 말 S&P 글로벌 또한 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 조정함.¹⁹⁾

■ [요인 (1) - 인플레이션 장기화 2023년 3월부터 꾸준히 9%를 웃돌던 소비자 물가상승률(CPI)은 2023/24년 연평균 9.73%로 2011/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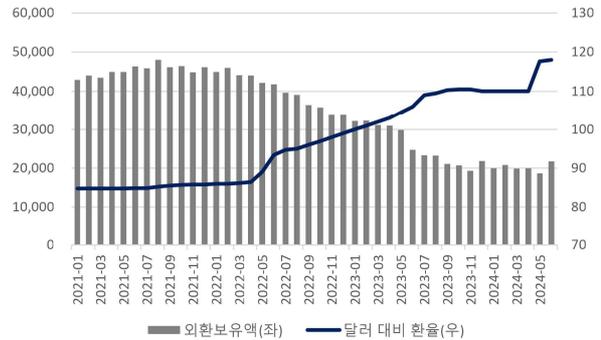
-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2023년 10월 최고치인 12.54%를 기록했으며, 2023년 12월 기준 농촌 지역의 체감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공식 수치보다 높은 1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²⁰⁾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으로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촉발되었으며 타카(taka)화 가치 급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심화함.²¹⁾
- 세계은행이 2024년 4월 발표한 「Macro Poverty Outlook for Bangladesh」에 따르면 높은 물가상승률과 민간 소비 부진으로 2023/24년 한 해 동안 약 50만 명의 방글라데시 인구가 극빈곤층(일일 2.15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됨.²²⁾

그림 3. 방글라데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 CEIC 및 방글라데시 통계청(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8. 8.).

그림 4. 방글라데시 환율 및 외환보유액 (단위: 백만 달러, 타카/달러)



주: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24. 8. 9.).

■ [요인 (2) - 외환보유고 고갈 통화 가치 급락으로 수출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2022년 1월 450억 달러에서 2024년 5월 186억 달러로 대폭 축소됨(그림 4 참고).

- 러-우 전쟁에 기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대비 타카 환율이 85~86타카 선에서 1년 만인 지난 2023년 1월 100타카를 넘어섬.²³⁾

19) Nikkei Asia(2024. 7. 30.), "S&P cuts Bangladesh's debt rating to 'B+' from 'BB,'" <https://asia.nikkei.com/Economy/S-P-cuts-Bangladesh-s-debt-rating-to-B-from-BB>(검색일: 2024. 8. 8.).
 20) 방글라데시 개발연구원(BIDS) 조사 결과에 따름. The Daily Star(2024. 6. 4.), "Inflation hits seven-month high," <https://www.thedailystar.net/news/bangladesh/news/inflation-hits-seven-month-high-3626111>(검색일: 2024. 8. 7.).
 21) The Daily Star(2024. 5. 14.), "April food prices cross 10%, highest in five months," <https://www.thedailystar.net/business/economy/news/april-food-prices-cross-10-highest-five-months-3609166>(검색일: 2024. 8. 7.).
 22) World Bank, Macro Poverty Outlook for Bangladesh: April 2024 (English),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033404052422379/pdf/IDU1846558591c9d114459184ed1e2e4700285a8.pdf?_gl=1*qphxzl*_gcl_au*NTA0ODQzNDk1LjE3MjMxMTUwNDM(검색일: 2024. 8. 8.).

- 공급망 병목 심화와 주요 수출 대상국인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방글라데시 수출실적은 당초 목표했던 금액을 밑돌고 있음.
 - 방글라데시 수출진흥국(Export Promotion Bureau)의 발표에 의하면 2023/24년 5월까지 연간 누적 수출액은 515억 4천만 달러로,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수출액인 563억 달러(11개월 기준)에 비해 8.5% 낮은 수준임.²⁴⁾
 - 방글라데시 경제의 근간으로 수출의 약 85%를 책임지는 의류산업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2023년 하반기 최저임금 인상 시위로 한동안 부진을 겪음.
-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주노동자 수가 2022년 113만 명, 2023년에는 130만 명을 초과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연이어 갱신하고 있으나, 공식-비공식 환율 격차로 송금유입액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임.²⁵⁾
 - 공식-비공식 환율 격차는 1%당 송금액의 3.6%가 비공식 부문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024년 1월 기준 비공식 환율은 달러당 124~125타카로 공식 환율과의 격차가 9%에 달함.²⁶⁾
 - 2022년과 2023년 송금유입액은 각각 213억, 219억 달러로 2021년 대비 3.6%, 0.7% 감소함.²⁷⁾
- 한편 2026년 최빈개도국(LDC) 졸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 유입이 시급한 가운데, 2023년 FDI가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한 30억 달러에 그침.²⁸⁾
 - 2023년 기준 GDP 대비 FDI는 약 0.4%로 전년도 0.75%에서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환율 불안정, 외환보유액 감소,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에 기인함.²⁹⁾
 - 방글라데시의 강점인 값싼 노동력이 자동화 기술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및 항만 인프라 부족, △제한된 금융 상품, △거버넌스 부재와 뇌물수수 만연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장기적인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있음.³⁰⁾
-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24년 5월 10년 내 최저치인 186억 달러를 기록한 뒤 6월 218억 달러로 소폭 회복했으나, 이는 상품 수입대금 3개월 치에 불과함.³¹⁾

23)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IMF 권고에 따라 평가 조정 환율제도(crawling peg)를 도입, 2024년 5월 8일부터 달러 대비 환율을 117~118타카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Bloomberg(2024. 5. 8.), "Bangladesh Introduces Crawling Peg for Taka as Rates Raised,"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5-08/bangladesh-raises-key-policy-rate-to-tame-inflation?sref=QbgqEltZ>(검색일: 2024. 8. 8.).

24) 방글라데시 수출진흥국, https://epb.gov.bd/site/view/epb_export_data/-(검색일: 2024. 8. 9.).

25) The Daily Star(2024. 1. 3.), "Export, remittance earnings limp along," <https://www.thedailystar.net/business/economy/news/export-remittance-earnings-limp-along-3509211>(검색일: 2024. 8. 8.).

26) The Business Standard(2024. 1. 27.), "Remittance: Where are the missing billions?" <https://www.tbsnews.net/analysis/remittance-where-are-missing-billions-782130>(검색일: 2024. 8. 13.).

27)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 자료(검색일: 2024. 8. 13.) 바탕으로 저자 계산.

28)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Monthly Economic Trends(July 2024)"(검색일: 2024. 8. 22.) 바탕으로 저자 계산.

29) IMF Country Report No.24/186 Bangladesh 2024.

30) US Department of State, "2023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Bangladesh."

31) 방글라데시 통계청(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Foreign Trade Statistics(April 2024)"(검색일: 2024. 8. 9.) 바탕으로 저자 계산.

3. 반정부 시위의 영향과 향후 과제 및 전망

■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사임은 방글라데시 국민들에게 ‘두번째 독립’ 또는 ‘해방’으로 불리며, 방글라데시 정치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상징하고 있음.

- 지난 8일 하시나 총리가 사임한 후 무함마드 유누스를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출범함.
- 모함메드 사허부딘 대통령은 군부와 학생 지도부 등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과도정부를 구성하였으며, 무함마드 유누스를 과도정부의 수장으로 임명함.
 - 전 총리이자 야당 지도자인 칼레다 지아의 석방을 명령하여, 지아는 가택 연금에서 풀려남. 또한 최근 공무원 할당제에 대한 시위 중 구금된 모든 학생들의 석방도 지시함.
 - 2023년 8월 1일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에 의해 금지되었던 자맛 에 이슬라미(Jamaat-e-Islami)당도 복원됨.

■ 새로운 정부의 구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해결이 시급함.

- 방글라데시 군부가 과도정부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군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방글라데시 군대는 과거 쿠데타의 역사가 있으나, 최근 수십 년 동안은 공적 문제에 공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 아와미 연맹에 대한 보복성 공격과 방글라데시 내 소수종교인 힌두교도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육군 참모총장 와케르-우즈-자만(Waker-Uz-Zaman) 장군은 아와미 연맹 정부의 일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군이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밝힘.³²⁾
 - 하시나 총리는 8월 5일 사임한 후 인도로 달아났으며, 그가 이끄는 세속주의 정당인 아와미 연맹이 힌두교도들과 가까운 관계로 인식되어, 힌두교도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음.
 - 힌두교 신도 수백 명이 탈출하기 위해 인접국인 인도 서벵골주 국경에 몰려가기도 했으며, 11일 방글라데시 내 소수 종교가 박해받고 있다고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함.

■ 과도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재건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 과도정부는 방글라데시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고, 사회 전반에 신뢰를 회복해야 함.
- [법적 절차 복귀 무너진 법적 절차와 제도를 재정비하여 정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치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유누스는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법과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 시민들의 불만을 경청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함.

32) The Daily Star(2024. 8. 13.), "Gave Shelter to some AL leaders as their lives in danger," <https://www.thedailystar.net/news/bangladesh/news/gave-shelter-some-al-leaders-their-lives-danger-army-chief-3676416>(검색일: 2024. 8. 14.).

- [새로운 정부 구성 준비] 헌법에 따라 의회 해산 후 90일 이내에 총선을 관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함.
 - 오바이둘 하산 대법원장과 5명의 대법관이 사임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대법관 임명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 [국제적 신뢰 회복 및 파트너십 재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재구축하고, 특히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방글라데시의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과 관련하여,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함.
 - 유럽연합은 7월 시위에 대한 정부의 반응으로 인해 GSP 협상을 연기했으며, 과도정부는 이러한 협상을 재개해야 함.

■ 또한 과도정부는 국가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앞서 분석했듯이 반정부 시위로 진화한 공무원 할당제에 대한 시위는 방글라데시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과도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 IMF는 시위 이후 과도정부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47억 달러 규모의 대출 계획을 계속 진행할 예정임.³³⁾
- 방글라데시의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이번 반정부 시위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기성복 산업은 국가 총수출의 83%를 차지하며, 이는 방글라데시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함을 의미함.
 - 7월 시위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수출업체들은 국내 정치적 혼란과 공장 악탈이 지속되면 손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특히 6~9월이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정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 이후의 과도정부에 대한 국제적 입장에 주목해야 함.

- 하시나 전 총리는 현재 인도에 머물고 있으며, 그녀의 거취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하시나 정부는 오랫동안 친인도 정책을 펼쳐왔으며, 1월 선거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하시나의 친인도적 입장에 반대하는 ‘인도 불매’ 캠페인이 시작되기도 했음.
 - 하시나 정부 집권 시 인도정부는 하시나의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 무력화와 과거 인도 북동부 반군 세력 제거에 도움을 준 하시나 정부를 지지해 왔음.³⁴⁾
 - 인도가 방글라데시의 망명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과 동시에 망명은 인도가 동맹국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음.³⁵⁾

33) Reuters(2024. 8. 6), “IMF says it is fully committed to Bangladesh after protests oust,”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mf-says-it-is-fully-committed-bangladesh-after-protests-oust-pm-2024-08-06/>(검색일: 2024. 8. 11.).

34) The Diplomat(2024. 8. 13.), “Putting Bangladesh-India Relations on an Even Keel,” <https://thediplomat.com/2024/08/putting-bangladesh-india-relations-on-an-even-keel/>(검색일: 2024. 8. 22.).

35) France 24(2024. 8. 15.), “India ‘over-invested in Hasina and under-invested in Bangladesh’ - and is now panicking,”

-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고 있어, 방글라데시가 하시나에 대한 공식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경우 인도는 이를 수락하거나 국제 협약을 위반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함.
- 하시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인도와 중국은 하시나 정부의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선호했으며, 과도정부에 대한 두 국가의 입장이 주목됨.³⁶⁾
- 미국이 지난 총선을 공정하지 않다고 규정했음에도, 인도와 중국은 하시나 정부에 축하 인사를 보냈음.
- 중국은 최근 하시나 총리의 축출과 임시 정부 구성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혔으며, 방글라데시의 새 정부와 ‘전방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발표함.³⁷⁾

■ 방글라데시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한국계 진출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임.

-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무역이 중단되거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주요 투자 및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특히 섬유 및 의류 산업에서 중요한 협력국임.
 - 글로벌 패션 업체들의 생산 공장이 방글라데시에 있으며, 한국의 영원무역도 현지에서 6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해 생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변동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이 지속해온 경제적·인적 교류는 과도정부의 성향에 따라 양국간 협력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노동자 및 기술 인력의 교류에 차질이 생기고, 노동력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과도정부와의 외교적 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KIEP**

<https://www.france24.com/en/asia-pacific/20240815-india-over-invested-hasina-under-invested-bangladesh-panicking-sheikh-hasina-narendra-modi>(검색일: 2024. 8. 22.).

36) Chatham house, <https://www.chathamhouse.org/2024/08/sheikh-hasinas-departure-exposes-fractures-bangladeshs-politics> (검색일: 2024. 8. 11.).

37) DW(2024. 8. 16.), “Decoding China: Seizing the moment in Bangladesh,” <https://www.dw.com/en/decoding-china-seizing-the-moment-in-bangladesh/a-69961454>(검색일: 2024. 8. 22.).